

신예 신예은 돌풍 이어진다!

꽃선비 열애사

3월 20일(월) 첫 방송

새 월화드라마 <꽃선비 열애사>가 3월 20일(월) 밤 10시에 첫 방송된다.

<꽃선비 열애사>는 모든 고정관념을 타파한 하숙집 '객주 이화원'의 주인 윤단오와 비밀을 품은 하숙생 꽃선비 3인방이 만들어내는 미스터리 밀착 로맨스다. 동명의 웹소설을 각색한 드라마로 연기파 청춘 배우 신예은, 려운, 강훈, 정건주 등이 출연하여 화제를 모으고 있다.

대본은 <캐리어를 끄는 여자>, <갑동이>, <로열 패밀리> 등으로 필력을 인정받은 권유미 작가와 <복춘 반선비의 출세가도>로 총총한 구성력을 보여준 김자현 작가가 맡았다. 더불어 <암행어사: 조선비밀수사단>, <간택 - 여인들의 전쟁>, <조선총잡이>, <공주의 남자> 등을 연출한 김정민 감독이 메가폰을 잡는다.

최초로 사극에 도전하는 신예은은 부잣집 양반가의 금지옥엽 막내딸이었으나 아버지가 죽은 후 소년 가장으로 전락한 윤단오 역을 맡았다. 과거 준비로 각지에서 올라온 선비에게 셋방을 주는 객주 이화원을 억척스럽게 운영하고 있다. <더 글로리>, <3인칭 복수>로 주가를 한껏 높인 신예은이 보여줄 청춘 사극의 여주인공 역할에 관심이 쏠린다.

려운은 외모로 권세 제일인 세도남(勢道男)이지만 결을 주지 않는 조선의 냉미남이자 무과 준비생 강산 역을 맡았다.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로 2022년 SBS 연기대상 신인상을 수상하며 연기력을 인정받은 려운은 <꽃선비 열애사>를 통해 사극 남주의 새 패러다임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까칠함 속 은근한 따뜻함을 뽐내내는 강산 역으로 코믹, 설렘, 액션까지 섭렵하며 매력 부자 캐릭터의 진수를 보여줄 예정이다.

강훈은 문과 준비생이지만 과거시험보다 노는 것에 더 관심이 많은 전형적인 한량 김시열 역을 맡았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정의파 기질도 있다. 강훈은 김시열 역을 통해 능글맞은 모습부터 정의로운 면모까지 총천연색 매력을 발산할 예정이다. <신입사관 구해령>, <옷소매 붉은 끝동>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사극이니만큼 무르익은 연기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정건주는 대대로 빼대 있는 가문의 막내아들 정유하로 분한다. 몸에 흐르는 귀티와 자상한 성품, 뛰어난 글재주와 총명함으로 못 여인들을 설레게 하는 인물이다. 하지만 상대의 기분을 살피는 자상함은 눈치를 보며 살아왔기에 몸에 밴 습관 같은 거다. 유하는 누구나 꿈을 꿀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을 바란다.

한편, 단오의 유모이자 지금은 단오를 도와 이화원의 살림을 맡고 있는 나주댁으로 이미도, 단오 아버지의 제자이자 이화원의 최고령 하숙생 육육호 역으로 인교진이 출연한다. 그밖에 오만석, 안내상, 한채아, 반야, 현우, 권도형, 길은혜, 남기애, 이준혁, 주석태 등이 탄탄하게 극을 받쳐준다.

통통 튀는 로맨스와 강렬한 서사까지 모두 즐길 수 있는 남녀노소 취향 저격 신개념 사극 <꽃선비 열애사>는 3월 20일(월) 밤 10시에 첫 방송된다.





어벤져스급 라인업으로 돌아온다

베트남으로 스케일 넓힌 시즌 5, 3월 22일(수) 첫 방송



대한민국 최장수 골프 예능 <편먹고 공치리(072)>이하 <공치리>가 시즌 5 '승부사들'로 돌아온다.

시즌 5는 국내를 넘어 베트남으로 스케일을 확장했다. 이에 더해 국내 최정상 스타들이 대거 합류한 어벤져스급 라인업으로 오랜 시간 기다린 팬들의 갈증을 해소해 줄 예정이다.

먼저, <공치리> 터줏대감 이경규와 연예계 소문난 골프 고수 강호동이 세기의 라이벌전을 펼친다. 예능은 물론, 골프까지 사제지간이라는 두 사람은 서로를 우승 후보로 꼽으며 긴장감을 나타냈다. 이들과 한 편을 이룬 출연자는 지난 시즌 같은 편으로 3위를 차지한 '간헐적 천재' 김종민, 입담만큼 출중한 실

력의 소유자 양세찬이다. 지난 시즌 같은 편이었던 이들이 이제는 적으로 서로를 마주해 흥미를 자극한다.

뿐만 아니라 프로야구의 레전드, '조선의 4번 타자' 이대호는 모든 것이 베일에 감춰진 은지원과 편을 먹었다. 연예계 소문난 절친이자 골프 마니아라는 차태현과 홍경민 역시 이번 시즌 뉴페이스로 합류해 놀라운 케미를 보여준다. 더불어 미스터리한 골프 실력으로 모두를 긴장시킨 영탁, 에릭(그룹 '더보이즈') 팀은 촬영 전, 자진해서 만나 연습하는 등 골프 열정을 불태우고 있다고 해 기대를 모은다. 이어 시즌 4 최고의 반전 캐릭터로서 '청춘 골프'의 모습을 보여준 그룹 '씨엔블루'의 이정신은 '배우계 숨은 고수' 신승환과 새롭게 편을 먹어 눈길을 끈다.

시즌 5 역시 토너먼트 형식으로 펼쳐진다. 12인의 출연자들은 필드 위 승부사로서 치열한 대결을 펼친다. 지난 시즌 본선부터 함께한 갤러리들이 이번에는 첫 경기부터 함께해 이들을 더욱 긴장시킬 예정이다.

한편, 지난 시즌 완벽한 호흡을 자랑한 MC 박미선과 프로 골퍼 유현주는 더 강해진 입담, 한층 더 전문적인 중계로 프로그램에 재미를 더할 예정이다.

연예계 최고의 골퍼 12명 중 진정한 승부사를 뽑는 <편먹고 공치리(072)> '승부사들'은 3월 22일(수) 밤 10시 40분 첫 방송된다.

부서탐방



“숫자를 넘어 현장의 가치를 보도한다”

- 보도본부 경제부 산업과학팀

“이번 달 난방비 40만 원이나 나왔는데 어떡해요.” 시장에서 두부를 판매하는 70대 노인은 취재기자를 붙잡고 십여분 넘게 하소연했다. 마트에서 만난 40대 주부는 “물가가 너무 올라서 장보기가 무섭다”고 얘기했고, “올해는 적자를 피하기 어렵다”는 중소기업 사장과 체불 임금에 고통받는 근로자들은 한숨을 내쉰다.

경제부 산업과학팀 기자들의 취재는 ‘현장’이 담겨 있다. 경제부 취재가 주로 차가운 숫자와 씨름하는 것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산업과학팀의 취재는 늘 직접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와 맞닿아 있어 뜨겁다. 소비자와 자영업자, 기업 경영자와 근로자, 공무원 등 다양한 이들을 만나 생생한 현장을 누빈다.

산업과학팀 기자는 가치판단의 갈림길에서 고민해야 하는 경우가 잦다. 현장의 ‘먹고 사는 일’이 옳고 그름이나 선악을 나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산업과학팀 기자들은 자유롭게 소통하고, 또 소통을 위해 노력한다. 산업 파트(정연, 김관진, 정준호)와 유통 파트(김수영, 제희원, 정반석), 노동 파트(정준호, 제희원, 정반석)는 따로 구분해 다룰 수 없는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는 취재 분야이기 때문이다. 다른 팀도 마찬가지지만 산업과학팀의 팀워크가 유독 좋은 이유다.

산업과학팀에는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자들도 포진해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담당하고 있는 전병남 기자는 취재와 함께 동료들을 대신해 SBS 먹거리에 대한 고민을 함께하고 있다. 장세만 환경전문 기자는 탄소중립 관련 보도로 ‘지속가능기업발전협의회’ 언론상을 수상했고, 기상



정구희

제희원

정연

최호원 팀장

권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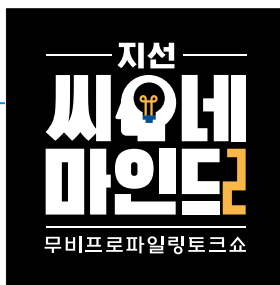
김관진

과학팀의 권란, 정구희, 서동균 기자는 태풍, 미세먼지 같은 기상 재난 보도와 함께 미래를 이끌어갈 첨단과학 분야를 취재하고 있다.

우리 산업과학팀 기자들은 ‘경제부 기자들은 무딘 칼을 휘

두른다’는 편견을 깨는 데도 앞장서고 있다. 소비자 피해 사례와 기업 내부 비리를 고발·보도하고, 서민과 근로자의 권익을 위한 ‘날 선’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비판과 감시라는 역할은 놓쳐선 안 되는 언론 본연의 가치다.

1,500만 뷰 돌파



시즌 2로 돌아온다

범죄심리학자 박지선 교수의 영화를 보는 색다른 시각



누적 조회 수 1,500만 뷰를 돌파한 <지선씨네마인드>(연출: 도준우, 길용석, 김영태)가 4월 2일(일) 시즌 2로 돌아온다.

2022년 4월 <그것이 알고 싶다> 유튜브 채널 오리지널 콘텐츠로 시작한 <지선씨네마인드>는 TV에도 정규 편성되며 첫 시즌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 날카로운 관찰력으로 영화를 바라보는 범죄심리학자 박지선 교수와 SBS의 딸이자 '프로파일러'를 꿈꾸는 프'도'파일러 개그우먼 장도연의 환상적 케미는 시즌 2에도 이어질 예정이다.

<지선씨네마인드> 시즌 2에서는 2023년, 개봉 20주년을 맞은 봉준호 감독의 <살인의 추억>을 시작으로 <친절한 금자씨>, <이터널 선샤인>, <빌리 엘리어트> 등 범죄 스릴러, 멜로, 성장 영화까지 더 다양한 장르 영화 8편이 대기 중이다. 심지어 해외에서도 모시기 힘든 월드스타 배우나, 배우 겸 감독 유지태, 웹툰 작가 주호민 등 역대급 라인업의 게스트가 출연을 결정했다.

도준우 PD는 "지난 4개월간 우린 가장 이상적인 영화 분석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토론해왔다. 전편을 훌쩍 뛰어넘는 속편을 보게 될 것"이라며 시즌 2에 대해 자신감을 보였다.

예민한 시선으로 영화 속 1초 1프레임을 놓치지 않는 박지선 교수의 시각과 1일 1영화를 실전 중인 장도연의 새로운 영화적 접근, 그리고 영화별 찰떡 게스트까지 더해진 <지선씨네마인드> 시즌 2에서 선보일 무비 프로파일링은 4월 2일(일) 첫 방송을 시작으로 매주 일요일 밤 11시 5분 상영된다.



“시네마 키즈에서 영화 담당 기자까지”

- 보도본부 논설위원실 이주형 부장

자기소개를 부탁한다.

1995년 입사해서 만 27년 조금 넘었다. 경제부를 뺀 모든 부서를 돌았고 문화부에 세 번 있었다. 뉴미디어국에서 6년 동안 데스크-부장-국장을 거쳤다. 국방대 연수 갔다 온 후 다시 일선에서 영화를 담당했고, 작년 12월에 논설위원실로 왔다. 중학교 때부터 기사를 꿈꿔 대학교 때 학보사 기사를 했다. 청소년기에 '스크린'지를 탐독했고 1988년 국내 첫 개봉한 '모던타임스'를 감명 깊게 본 후 본격적으로 영화에 관심을 두었다. 대학 때 몇몇 친구들과 영화 공부를 하며 사설 시네마테크에 드나들었고, 영화진흥공사 시나리오 공모전에 출품하기도 했다. 입사했을 때 영화 담당 기사를 하고 싶어 문화부에 지원했는데 신입기자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이제라도 해 봤으니 됐다.

요즘 TV에서 많이 볼 수 있다.

토요일 <SBS 8 뉴스> [더 스페셜리스트]에 작년 6월 합류했다. [더 스페셜리스트]는 문화 김수현, 경제 정호선, 의학 조동찬, 과학 정구희 기자로 돌아가 현재는 환경 장세만 기자와 제가 추가돼 6명이 돌아간다.

<뉴스 브리핑>은 2월 개편부터 격주 금요일에 출연하는데 그 주의 박스오피스와 눈여겨볼 만한 영화 두 편을 소개하고, 최근 사회현상과 관련된 영화 한 편을 추천한다.

SBS 뉴스 홈페이지와 네이버 등에서 연재하고 있는 '씨네멘터리'가 인상적이다.

영화 담당하면서 시작했다. 부담 없이 시작했는데, 글 쓰는

근육을 키우려고 어떻게든 매주 쓰다 보니 네이버 연재물로 등록되면서 65회까지 왔다. 문제는 의도치 않게 공력이 점점 더 들어가고, 쓰고 싶은 마음이 넘쳐나서 써야 하는데 때로 의무감에 시달린다는 점이다. 그러나 구독자와의 약속이고, 억지로라도 쓰다 보면 아이디어도 나오고 그게 또 저를 굴러가게 한다. 어떻게 하면 균형을 찾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다.

월드컵 때 손흥민의 어시스트, 힐튼호텔의 영업종료 등 이슈와 맞물린 영화 리뷰가 영화 평론가의 글과 차별화 된다.

이름난 영화 평론가와 유튜버 중에는 영화 분석 잘하고 과거 영화까지 꿰뚫으며 얘기해주는 대단한 분들이 많다. 제가 그분들과 비견될 수 없다. 다만, 기자로서 좀 더 보편적인 시각으로 영화 외적인 콘텍스트와 섞는 리뷰는 제가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그래서 타이틀도 씨네마+코멘터리(또는 다큐멘터리)인 '씨네멘터리'다. 영화 그 자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화와 우리의 일상, 보통 사람의 가치관, 사회적 현상을 어떻게 묶어낼 수 있을까 고민한다.

노래 가사의 뜻과 운율에 주목하거나, 사자성어와 영어 대사도 인용하는 등 내용이 상당한 것 같다.

현학적으로 보일까봐 걱정이다. 송골매 노래와 김소월 시의 운율적 유사성 등은 저도 글을 쓰면서 발견한 것들이다. 영화 '바빌론' 대사를 인용한 건 제가 영어 실력이 뛰어나서 그런 건 아니고 영화 보면서 대략 메모해 뒀다가 대본을 구해서 확인한 뒤 쓴 것이다. 외국 영화들은 여력이 되면



영미권 주요 언론의 리뷰를 사전 찾아가며 대략 확인한다. 글은 활자로 남기에 조심스럽다. 그래서 자료 수집과 사실 확인 등에 많은 공을 들인다. 기자로서 관심사가 여러 장르와 분야에 걸쳐 있고 어디를 파야 필요한 정보가 나오지는 좀 안다. 글을 쓰면서 그걸 연결하는 거다. 사자성어의 경우는, 한자를 좋아한다.(웃음) 철학을 전공해서 동양철학을 펴내는 출판사에서 한자를 확인하는 아르바이트를 한 적도 있다. 어떤 상황에 적합한 사자성어 표현이 떠오르면 그걸 쓰고 싶어 미치겠다.(웃음)

좋아하는 영화를 맘껏 볼 수 있는데?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시사화를 연달아 보면 허리도 아프고 집중도 안 되고 재미없는 것도 억지로 봐야 하니 재미있는 일만은 아니다. 또 글을 쓰기 위해선 본 영화를 다시 봐야 해서 시간도 많이 걸린다.

기자들은 일주일만 휴가 갔다 와도 감이 떨어진다. 나오는 영화의 절반이라도 보고, 관련 통계도 매일 확인해야 영화 산업이 이렇게 굴러가는구나 감을 잡을 수 있다. 감을 놓치지 않기 위해 매일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 논설위원실로 왔으니 사회적 이슈에 대한 칼럼도 써볼 생각이다. 지난주에 '법 기술자'를 주제로 한 편 출고했다.

AI, 어떻게 미디어에 접목되나? 'SBS AIX 현황과 계획' 세미나 개최

SBS의 AIX(AI Transformation) 현황 및 중장기 플랜에 대한 세미나가 3월 13일 (월) 목동 SBS방송센터 13층 SBS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세미나에 박정훈 사장과 방문신 부사장, 각 본부장과 팀장을 비롯해서 제작과 보도, 디지털 관련 부서 사원 200여 명이 참석하여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아래는 이 세미나에서 발표된 김상진 기술본부장의 강연을 간추린 내용이다.



SBS의 AIX - 미래, 현재 그리고 곧...

- 김상진 기술본부장

요즘 Chat GPT는 가장 관심을 끄는 주제이다. 이 기술로 언젠가는 시놉시스, 나아가 대본을 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영상 생성 AI는 이 대본을 가지고, 배경 영상을 만든 뒤에 대역의 얼굴 위에 유명 배우의 얼굴과 표정, 음성을 입힐 수도 있다. 그러나 과연 언제 이런 일이 가능할 것인지 아닌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거기에는 이미 엄청난 기술과 자본이 들어가고 있으므로, 우리는 그 가능성을 주시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적의 일을 찾아 대비하면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효율적이며 혁신적인 AI 시대를 준비하는 것, 그것이 SBS AIX(AI Transformation)의 시작이다.

AIX는 AI를 통해 업무를 혁신(비용과 시간 측면)하는 것을 말한다. 2~3주 전 급 '핫'해진 이 용어를 IT 회사도 아닌 SBS에 갑자기 적용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일까? 그리고 그것은 무슨 의미를 갖는 것인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내용의 핵심이다. SBS는 미디어 컴퍼니이지만, 디지털에는 늘 앞서고 강했다. 독자 플랫폼 수익이라는 꿈을 안고, BtoC 서비스를 위해 수년간 구축한 OPS는, 비록 그 본연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 실패했지만 SBS DX(Digital Transformation)의 기반을 만들기에는 최적의 환경이었다. DX와 AIX의 선순환 구조(서로 간에 생성된 디지털 데이터를 넘겨주는 그런 환경)를 내다보고, OPS에 AI의 실

험적 구현을 한 지가 4년쯤 된다. 얼굴 인식, 문자 인식, 음성 인식, 자연어 처리, 이미지 DNA, 번역 등 AI 관련 기술을 현업에 적용해 보면서, 성공 가능성을 확실하게 되었다. 그래서 2023년은 AI 기술을 제작 환경(PDS, NDS, DAS)에 본격적으로 도입하는 원년으로 삼고자 한다. 올해 내에, "000 의원의 과거 000 발언", "000 보좌관 과거 영상", "000 시장 우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도 검색 시스템에 적용하여, 방송 중에 빠르게 자료화면을 준비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교양에는 거대한 미방송 아카이브를 만들어서, 아주 편한 검색을 통해 방대한 촬영본의 대사 지점으로 정확하게 찾아가게 할 것이다. 수일이 걸리던 프리뷰 노트를 몇 분 만에 자동 생성하게 하고, 아카이브에서는 갑자기 뜬 배우의 과거 출연 영상을 사진 한 장으로 검색해 영상을 다운받을 수 있게 된다. 라디오에서는 오늘의 분위기를 제시하면, AI가 그 조건에 맞는 음악 선곡을 할 것이다. 유통 분야도 AI를 도입하면서 새로운 차원으로 변한다. 엄청난 유튜브 클립들을 AI가 분석해 인물, 행동, 뉴스 주제의 통계 데이터를 만들게 되면, '2023년 일본에서는 어떤 인물의 클립 조회 수가 높을까'에 대한 답을 알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통계를 기반으로 사람의 개입이 필요하지 않은 '일본어 000 AI 리메이크 채널'과 같은 무한한 채널 생성이 가능하게 된다. AI 리메이크 채널의 진화 가능성은 얼마나

지 무궁무진하다.

내년에는, '000 환하게 웃는 영상' 같은 정교한 얼굴 검색으로 제작의 편의성을 더욱 높일 것이다. 번역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문맥 기반 번역 AI'를 수행하고, 키스 장면, 먹방 장면 같은 다양한 '행동 인식 AI'를 제작/유통 과정에 넣을 수 있게 된다. AI 보이스와 AI 라디오 대본 자동 생성을 통해 라디오 프로그램을 자동 생성할 계획도 있다.

디지털에 강하면 AI도 강하므로 SBS의 AIX 발전 가능성은 높다. 제작 유통 프로세스에 AIX를 지속적으로 구현해 놓으면, 어느 순간 강력한 AI 모델이 나와도 빨리 대응할 수 있다. 이것이 미디어 컴퍼니가 AI를 가장 잘 준비하는 길일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유념할 것은 AI의 적용은 충분한 학습 데이터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제작 환경에서 가장 적절한 학습데이터를 준비해 놓고 있어야만 한다. 이를 위해 효율적 저장 방안과 제작 업무상 불편함이 최소가 되도록 시스템을 잘 준비하는 것도 숙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점은, 한 번에 업무의 조력자로 성공하는 AI가 없다는 것이다. 오류를 수용하기 힘든 방송사의 바쁜 제작 환경은 그래서 많이 우려되는 부분이다. SBS AIX 시작의 원년,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사우 여러분의 협조다. 더 나은 미래로 함께 가기 위한 부탁의 말씀을 조심스럽게 올린다.



평화방송·평화신문 통합플랫폼 'cpbc플러스' 공식 출시



가톨릭평화방송 이사장 손희송 주교
조재룡 SBSi 사장

SBSi가 구축한 가톨릭평화방송·평화신문의 PC웹 및 애플리케이션 통합플랫폼 cpbc플러스가 3월 3일(금) 축복식을 갖고 공식 출시되었다. 지난 2022년 9월 CPBC 통합 플랫폼 구축 조인식을 가진지 5개월여 만에 이루어낸 성과이다.

cpbc플러스는 CPBC가 지난 35년간 TV와 라디오, 신문을 통해 제작한 46만 개의 가톨릭 콘텐츠와 cpbc플러스 온라인 콘텐츠가 망라된,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가톨릭 콘텐츠 전문 온라인 서비스(OTT)이다.

SBSi는 지난 20년간 쌓아온 온라인 서비스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자체 개발한 SaaS형 미디어 플랫폼 ImOMP를 cpbc플러스에 적용하여 구축 비용과 시간을 절반 가까이 줄였다. 가톨릭평화방송은 향후 5년간 AWS 위에 설치된 ImOMP를 월정액 형태로 이용하게 된다. 이날 축복식에는 재단법인 가톨릭평화방송 이사장 손희송 주교, 가톨릭평화방송 사장 조정래 신부, 서울대교구 문화홍보국장 최광희 신부, SBSi 조재룡 사장, 아마존웹서비스(AWS) 정영 이사, SBSi 개발자와 CPBC 임직원 등이 참석했으며, 손희송 주교는 조재룡 사장에게 SBSi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감사패를 전달했다. 조재룡 사장은 "이번 프로젝트로 SBSi의 SaaS형 플랫폼(ImOMP) 사업은 성공적인 첫 걸음을 내디뎠다. 향후 종교방송과 지역민방 등 주요 방송사를 대상으로 OMP사업을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애니멀봐 '쫄꼬미 동물병원' 출간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만화로



48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애니멀봐의 대표 오리지널 콘텐츠 '쫄꼬미 동물병원' 시리즈가 책으로 나온다.

'쫄꼬미 동물병원'은 다양한 이유로 병원을 찾은 소동물 친구들의 치료 이야기를 재미있는 만화로 풀어냈다.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동물 친구들과 함께 잘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관심, 사랑, 이해심에 대한 이야기도 담고 있다.

책의 감수를 맡은 최영민 수의사는 "모든 동물들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독자 여러분도 생명의 소중함을 이

해하고, 보다 더 따뜻한 마음으로 동물들을 대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추천했다.

'쫄꼬미 동물병원'은 동물백과와 추리동화 2종으로 각 2권씩 총 4권 출간될 예정이다. 3월 말에 동물백과 1권이 나오며 2권은 6월에 출간된다. 추리동화는 4월과 7월에 각각 1, 2권이 출간될 예정이다.